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음 발표 순서가 누구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문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의문문에는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등이 있습니다. 관정 의문문은 화자의 질문에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관정 의문문의 개념이 이해되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답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한 질문은 “네.” 혹은 “아니요.”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관정 의문문입니다. 반면, 설명 의문문은 화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대담으로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는 청자에게 “내일 12시에 학교에서 만나.”와 같이 ‘언제’, ‘어디’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게에 갈래?”라는 문장은 어떤 대답을 요구할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맞습니다. “응.” 또는 “아니.”와 같은 대답을 요구할 텐데요. 만약 화자가 가게에 가 달라는 의도로 청자에게 이 의문문을 사용했다면, 이때 화자는 청자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게에 갈래?”라는 문장도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가게에 같이 가겠냐고 물음으로써 가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정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정 의문문을 사용하면 청자는 “네가 가게에 가.” 혹은 “나랑 같이 가게에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달리, 승낙 혹은 거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대답할 수 있으므로 거절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바깥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문을 닫는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밖이 시끄럽지 않니?”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화자가 밖이 시끄러운지에 대한 대답만을 요구한다고 판단한 청자가 “응, 시끄럽네.”라는 대답을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네, 그렇지 않겠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 관정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청자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화자가 요구한 행동을 수행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문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의도에 맞게 의문문을 사용한다면, 물 흐르듯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을 추가하여 청중의 요청에 따르고 있다.
-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발표를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의 화제가 의문문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문문을 설명해야겠어. ②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 관정 의문문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야겠어. ③
- 화자가 의문문을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야겠어. ④

[정리]

- 의도에 맞게 의문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유를 통해 강조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해 온 추가 자료를 모둠별로 분석해 볼까요?

A : ㉠ 중간고사 준비는 잘되고 있니?
 B : 아니, 아직 시작도 못 했어.
 A : ㉡ 근데 왜 계속 동아리 회의 자료만 보고 있어?
 B : 오늘 두 시에 회의인데 회의 준비를 다 못했거든.
 A : 고생이네. ㉢ 바람도 쉴 겸 잠깐 나랑 나갔다 올래?
 B : 아니, 배고파. ㉣ 마칩 열두 시니 같이 급식 먹을까?
 A : 그래, ㉤ 오늘 급식 식단표 좀 보여 줄 수 있어?
 B : 응, 그럼. 요즘 학생회에서 자세히 공유해 주더라.

학생 : _____ [가]

- ① ㉠은 화자가 청자에게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관정 의문문이겠군.
- ② ㉡은 화자가 청자에게 ‘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겠군.
- ③ ㉢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의사를 물음으로써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설명 의문문이겠군.
- ④ ㉣가 상대에게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경우, A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급식을 함께 먹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경우, B가 긍정의 대답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군.

[4~6] 다음은 동아리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진 폐전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전지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1: 조사해 보니, 폐전지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폐전지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 1: 폐전지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 폐전지 속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 2: 폐전지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 분리배출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 3: 폐전지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내용도 캠페인에 포함하면 어떨까요?

학생 1: 동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올바른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면 되겠네요.

사회자: 지금까지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2: 학교에 폐전지 수거함이 없으니, 학생들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수거함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3: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변 수거함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거함 위치를 표시한 지도도 함께 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1: 그러면 주변 수거함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설명하는 글을 함께 제공하면 되겠네요. 수거함의 위치를 몰라 폐전지를 분리배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학생 3: [가]

사회자: 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폐전지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까지 고려하셨네요.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토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 ② 토의의 배경과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③ 토의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토의를 이어 가고 있다.
- ④ 토의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의자들에게 추후 토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 [B]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말한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변 상황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학생 3’의 의견을 구체화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말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6. <보기>는 ‘학생 3’이 토의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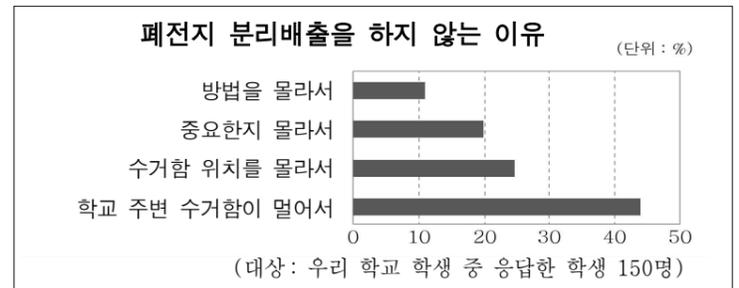
[3점]

< 보 기 >

[자료 1] 일반 수거함과 스마트 수거함 비교

구분	폐전지 수거함의 종류	일반 수거함	스마트 수거함
실시간 적재량 확인		×	○
이물질과 폐전지 혼합 방지 기능		×	○
즉시 보상(환경 포인트) 제공		×	○

[자료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자료 3] 폐전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

○○구는 폐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 □□ 씨는 “폐전지를 분리배출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는데 폐전지를 구청에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보상해 주니 자연스럽게 폐전지를 분리배출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 ① 폐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한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② 폐전지 수거함까지 찾아가기 어려워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니 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하되 실시간으로 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 ③ 폐전지 수거함의 수가 적어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니 여러 장소에 일반 수거함을 설치하면 많은 수의 폐전지를 분리배출할 수 있어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④ 폐전지 수거함이 관리가 안 되어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니 학교에 일반 수거함을 설치하면 환경 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 폐전지가 이물질과 섞여 배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 ⑤ 폐전지 수거함까지의 거리가 멀어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니 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하되 학생들에게 보상을 통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의 띄어쓰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어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하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단어인 의존 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중에 조사와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앞에 오는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의존 명사나 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판단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대로 ¹	「의존 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대로 ¹⁰	「조사」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뿐 ¹	「의존 명사」	「1」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뿐 ²	「조사」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 ¹	「의존 명사」	「1」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만 ¹²	「조사」	「1」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자 료 >

ㄱ. 나는 형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따로 모아 두었다.
 ㄷ. 이뿐 아니라 적치물이 비상구를 막기도 했다.
 ㄹ.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열정뿐이다.
 ㅁ. 그는 여행을 간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 ① ㄱ: '형이 시키는'이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로'는 의존 명사이니,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겠군.
- ② ㄴ: '대로'가 '따로따로 구별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조사이니,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겠군.
- ③ ㄷ: '이'가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뿐'은 의존 명사이니,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군.
- ④ ㄹ: '뿐'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조사이니,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겠군.
- ⑤ ㅁ: '만'이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의존 명사이니,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군.

8.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단어 '구무'[구멍]는 조사와 결합하는지,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구무'나 '굶'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합하는 환경에 따른 '구무'의 형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가?	→ 예	구무 [구멍]
↓ 아니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가?	→ 예	구무도(구무+도) [구멍도]
↓ 아니요		
조사 '와'와 결합하는가?	→ 예	구무와(구무+와) [구멍과]
↓ 아니요		
굶기(굶+이) [구멍이]		

'구무'처럼, 중세 국어의 단어 '나모'[나무]도 위와 같은 환경에서 '나모' 또는 '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의 중세 국어 예문에서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 꽃과 果實(과실)와는 [나무와 꽃과 과실은]
○ 그 後(후)에 (㉡) 더 도흐니라 [그 뒤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 | | |
|-------|----|
| ㉠ | ㉡ |
| ① 나모와 | 남기 |
| ② 나모와 | 나피 |
| ③ 남과 | 나피 |
| ④ 남과 | 남기 |
| ⑤ 남와 | 나피 |

9. <보기>의 ㉠, ㉡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동문은 주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피동문은 ㉠ 피동의 접미사 '-이-, -히-, -리-, -기-' 혹은 '-되다'를 붙인 피동사를 쓴 파생적 피동문과 ㉡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어지다'를 쓴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바람이 불자 창호지에 구멍이 작게 뚫렸다.
- ② ㉠: 결국은 우리 팀이 작년에 우승한 팀까지 이겼다.
- ③ ㉠: 환경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④ ㉡: 이 인물을 소재로 많은 명화가 그려졌다.
- ⑤ ㉡: 김 팀장에 의해 회의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1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 학습 활동 >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나기도 한다. ‘숲’[숲]은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형태소 ‘숲’ 내부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이고, ‘믿는’[민는]은 형태소 ‘믿-’과 형태소 ‘-는’이 만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이다.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하시오.

굳히다[구치다] 쭉대밭[쭉때밭] 끊다[끝타]

장미꽃[장미꼇] 부엌[부억]

- ① ‘굳히다’는 교체와 축약이,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겠군.
- ② ‘쭉대밭’은 교체와 첨가가,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 것이겠군.
- ③ ‘끊다’는 탈락과 첨가가,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 것이겠군.
- ④ ‘장미꽃’은 교체가,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 것이겠군.
- ⑤ ‘부엌’은 교체가,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를 약속하는 것이다.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했거나,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국제 거래에서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는 국제 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CISG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위험 이전은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지게 된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그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지게 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고 매매 계약의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

㉠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운송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과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에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국제 거래에서는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수령했을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한편 원유, 천연가스과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위험이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품 부적합이란 물품이 계약 내용이나 법적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CISG에 따르면 물품 부적합이 위험 이전 시점 전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이 품질, 포장 등에서 계약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멸실: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1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②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③ CISG에 따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진다.
- ④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있어야 한다.
- ⑤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 계약은 대부분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다.

12. 윗글과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운송인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도 위험 이전이 될 수 있다.
- ③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 ④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 ⑤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품 부적합이 발생한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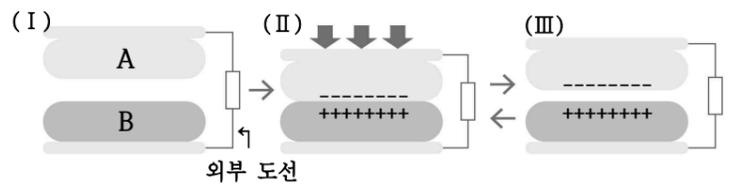
13. 다음은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메모이다. 윗글과 메모를 바탕으로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매도인 A는 매수인 B와 물품 ○○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A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다. B가 고용한 운송인은 A에게 ○○를 인도받아 B에게 운송했다. 운송 도중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태풍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여 ○○가 훼손되었다. B는 ○○를 수령한 직후 ○○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A에게 통지했다. A와 B의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을 규정한 CISG의 내용을 따랐다.

- ① B가 발견한 ○○의 훼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은 A보다 B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로부터 ○○를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에 위험이 A에서 B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태풍에 의한 침수로 ○○가 훼손되었음에도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B가 ○○를 수령한 직후 ○○의 훼손을 확인하였으므로, B는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위험 부담 주체는 A이고,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의 위험 부담 주체는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질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된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물질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자 친화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유리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비닐은 유리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접촉면을 통해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한쪽 물질에는 (+)의 표면 전하가, 다른 쪽에는 (-)의 표면 전하가 생긴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TENG)이다.



<그림>

TENG에는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 ㉠ 수직 방식은 두 물질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분리되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림>과 같이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A와 전자 친화도가 작은 물질 B에 전극을 붙여 외부 도선으로 연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I)처럼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A와 B는 분리되어 있으며, 이때 A와 B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두 물질 사이에 전위차가 없는 전기적 평형 상태이다.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이 가해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전자 친화도 차이로 인해 접촉면을 통해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하여 (II)와 같이 접촉면에 서로 반대 부호의 표면 전하가 형성된다. 이때 형성되는 (+)전하와 (-)전하의 양은 서로 같고 전하의 분포는 평형을 이루며 두 물질이 접촉해 있으므로 전위차가 없다.

외력이 사라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II)에서 (III)으로 두 물질이 분리되어 거리가 멀어지면, 표면 전하 사이의 거리 변화로 두 물질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한다. A와 B는 각각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A에서 B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양의 값으로 측정된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전류는 B에서 A로 흐른다. 다시 (II)와 같이 접촉이 진행되면 전자의 이동 방향, 즉 전류의 방향도 반전되고, 이 과정에서는 전류가 음의 값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접촉-분리 과정이 반복되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형태의 전류가 나타난다.

한편 ㉡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전자 친화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에 의해 표면 전하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 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면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이 달라지게 된다. 미끄러짐에 따라 접촉 면적이 줄어들 때, 접촉하지 않게 된 부분의 표면 전하는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룰 전하가 없어 두 물질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한다. 이 전위차를 줄여 전기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며 전류가 발생한다. 이후 줄어들던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류의 방향도 반전된다.

접촉에 관련된 기계적 움직임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효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평평한 면으로 보이는 물체도 미세하게 보면 표

면에 존재하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 일부 지점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㉔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를 갖는 미세한 나노 패턴을 만든다면 실제로 맞는 접촉점을 늘릴 수 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자 친화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 ② 두 물질이 접촉했을 때 접촉면을 통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 ③ 유리는 비닐보다 전자 친화도가 작기 때문에 비닐보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 ④ 두 물질의 유효 접촉 면적을 늘리면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⑤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접촉면에는 서로 반대 부호의 표면 전하가 형성된다.

15.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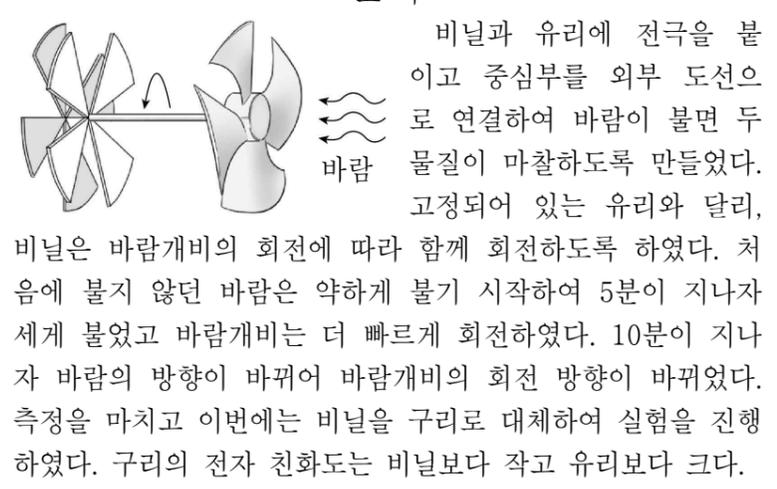
- ① ㉑과 ㉒ 모두 두 물질의 기계적 움직임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 ② ㉑과 ㉒ 모두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㉑과 달리, ㉒은 전기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두 물질 사이에 전하가 이동한다.
- ④ ㉒과 달리, ㉑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다.
- ⑤ ㉑에서는 두 물질의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㉒에서는 두 물질의 진동이나 압축이 발생한다.

16.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효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 표면 전하가 더 많이 형성되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② 실제로 맞는 접촉점이 늘어나면 미세한 나노 패턴이 형성되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③ 유효 접촉 면적이 같다면 작은 움직임으로도 전류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 접촉하지 않게 되는 부분의 표면 전하가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게 되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⑤ 물체에 존재하는 높낮이의 차이를 극대화하면 불필요한 전자의 이동을 막을 수 있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7. <보기>는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를 만들어 전류를 측정할 실험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비닐과 유리에 전극을 붙이고 중심부를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여 바람이 불면 두 물질이 마찰하도록 만들었다. 고정되어 있는 유리와 달리, 비닐은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 함께 회전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불지 않던 바람은 약하게 불기 시작하여 5분이 지나자 세게 불었고 바람개비는 더 빠르게 회전하였다. 10분이 지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바람개비의 회전 방향이 바뀌었다. 측정을 마치고 이번에는 비닐을 구리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리의 전자 친화도는 비닐보다 작고 유리보다 크다.

- 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비닐과 유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비닐에는 (-)의 표면 전하가, 유리에는 (+)의 표면 전하가 형성되지만 전류는 측정되지 않겠군.
- ②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위차가 발생하고 외부 도선을 통해 비닐에서 유리 쪽으로 이동하는 전자들은 양의 값의 전류로 측정되겠군.
- ③ 5분이 지나 바람개비가 더 빠르게 회전하면 접촉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빠르게 반복되어 전류 방향의 전환 주기가 짧아지겠군.
- ④ 10분이 지나 바람개비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 돌고 있는 동안에는 비닐의 표면 전하 부호와 유리의 표면 전하 부호가 서로 바뀌겠군.
- ⑤ 구리와 유리로 만든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에서는 접촉면을 통해 유리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한 (-)의 전하가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겠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가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을 ㉔ 좇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good)'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이는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은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어떤 존재가 선을 갖

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의무는 불침해, 불간섭, 성실, 그리고 보상적 정의로,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해당 의무를 갖는다. 불침해 의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불간섭 의무는 다른 생명체들을 포획하거나 생명체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㉑ 막는 것과 같이 인간이 개별 생명체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성실의 의무는 그 대상을 야생 동물로 국한하여, 총이나 덫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과 같이 야생 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앞의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생명체와 인간 간의 도덕적 균형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새의 둥지를 파괴한다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그것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해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나)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㉒ 미친다. 이렇게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한다.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된다고 본다.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 생태계의 운전함을 해치게 되므로, 그 동물을 선별해 죽일 의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 윤리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윤리이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㉓ 늑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로,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제대로 ㉔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생태

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의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㉕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생태 중심 윤리를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생명에 대한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나)는 특정 사상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생명체에 대한 특정 학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적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생명 현상에 대한 여러 학자의 이론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에 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도덕적 가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1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존재에게 선이 아닐 수 있다.
- ②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얻으면 그 생명체에게 선이 되는 것을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 ③ 어떤 생명체가 그 자신의 선을 갖는다면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④ 인간이 생명체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여 도덕적 균형을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의무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이다.
- ⑤ 서로 다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하고,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불침해 의무에 우선한다.

20. (나)를 바탕으로 할 때, ㉖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에서의 자기 역할을 통해 생태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 ② 생태계에서 개체의 생존이 생태계의 보전과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 ③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통해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 ④ 생태계의 평형은 늑대와 같은 개별 구성 요소의 총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 ⑤ 생태계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개별 생명체는 생태계의 다른 요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21.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테일러’,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과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 1 : ㉠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2 : ㉡ 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① 테일러는 ㉠에 동의하지 않고 ㉡에 동의하겠군.
- ② 레오폴드는 ㉠에 동의하고 ㉡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테일러는 ㉠에 동의하고 레오폴드는 ㉡에 동의하겠군.
- ④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과 ㉡ 모두에 동의하겠군.
- ⑤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과 ㉡ 모두에 동의하지 않겠군.

22.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지방 환경청은 하천 변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 A를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다. A는 하천 변을 따라 덩굴 형태로 자라 갈대, 억새뿐만 아니라 큰 나무의 생육을 저해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 ① 테일러는 A로 인해 다른 식물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인간이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겠군.
- ② 테일러는 A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생명체를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인간이 A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③ 레오폴드는 A가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하천 변 생태계에 해가 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겠군.
- ④ 레오폴드는 A로 인한 하천 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하천 변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하여 A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테일러는 하천 변 생태계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레오폴드는 하천 변 생태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겠군.

23. 문맥상 ㉠ ~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의 시선이 서편 하늘로 멀어지는 까마귀 떼를 쫓았다.
- ② ㉡ : 사람들은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
- ③ ㉢ : 학교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 ④ ㉣ : 이 건물의 상점들은 오랫동안 전자 제품만을 다뤘다.
- ⑤ ㉤ : 동생은 풀기 어려운 국어 문제는 늘 나에게 가져왔다.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건의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얼마만큼을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정 자원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 어떤 일은 하지 않을 것인지 정부 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제한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때 예산을 집행한 결과는 시민들의 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 개최, 위원회 참여,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 등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공개와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축소하며, 재정 자원 배분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져 공동의 선을 꾀할 수 있다.

(나)

공유 자원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어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속성이 있다.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소비하려 한다. 이로 인해 공유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별적 이익 추구가 전체적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공유지의 비극은 한정된 예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집단이 예산을 독점하면 다른 집단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각의 집단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그 결과 재정 자원이 쉽게 소진되어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그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나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입니다.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려는 의도로 학생회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학생 참여 예산제는 학생회 예산의 편성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안한 대로 결정하고, 예산의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 예산 공모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 공모제에 참여한 학생, 동아리 대표,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된 예산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와 공개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인근 학교의 사례는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줍니다.

제가 건의하는 개선 방안을 따른다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갈등으로 번진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예산에 관한 정보 공개는 더 많은 학생들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수용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 의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 참여 예산제가 만족도 높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가)와 관련하여,

-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주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 ①
-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②
-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③

(나)와 관련하여,

-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④
- 한정된 예산에서 자기 집단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주목하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제한된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목하고,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행정의 책임성보다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활용되는 위원회 참여 등의 방식에 주목하고,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예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주목하고, 재정 자원 소진을 위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충돌하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주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할수록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건의하는 글의 서론에는 글을 쓰는 의도를 밝힌다. 본론에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드러낼 수 있다. 결론에는 건의 수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한다.

- 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를 의도로 제시한다.
- ② 학생회 임원들이 제안한 대로 학생회 예산 편성을 결정하고,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다.
- ③ 학생 참여 예산 공모제의 실시와 예산 심의 위원회 구성, 충분한 정보 공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④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인근 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 ⑤ 학생 참여 예산 제도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대 효과로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예산에 관한 정보 공개는 정책의 목표와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예산 배분 요구를 자제하게 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배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향상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결과적 기능도 가진다.

- □□ 정책 자료집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정부 활동의 우선순위를 드러냄을 제시하고 예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으로 보완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이해와 소통을 통해 공동의 선을 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공개와 참여가 무리한 예산 요구를 자제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보완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한정된 예산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예산에 관한 정보 공개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갈등으로 번진다는 내용으로 보완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개별적 이익과 전체적 이익을 정확히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공개와 참여의 예방적 기능과 결과적 기능을 통해 전체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해야겠어.

[28~30] 다음은 학생들이 교지에 신기 위해 작성한 공동 보고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학교 앞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안전 실태 조사 보고서

I. 조사 동기 및 목적

최근 ○○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로 인해 양쪽 모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 학교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문제 탐구 동아리에서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로의 ㉠ 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 원인을 분석하여, ㉢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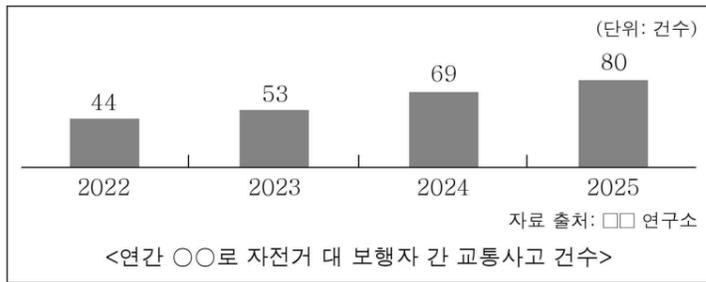
II. 조사 계획

1. 조사 방법: 설문 조사, 현장 조사, 문헌 조사, 인터뷰
2. 조사 내용: ○○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 현황 및 사고의 원인

III. 조사 결과

1. ○○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 현황

우리 지역 □□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로에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교통사고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래는 ○○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교통사고 증가를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2. 사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우리 동아리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도로의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하다. ○○로를 현장 조사한 결과 도로 바닥 곳곳에 균열이나 솟음이 발견되었으며, 자전거 통행 구간에 입간판이나 불법 설치물과 같은 노상 장애물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 연구소 김△△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도로의 파손과 노상 장애물은 자전거 주행에 큰 방해가 되어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로 이어집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로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로에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의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항목에 자전거 이용자의 7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자신이 위반한 안전 수칙은 무엇인가?’라는 항목에서는 ‘통행 구간 미준수’, ‘규정 속도 미준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행자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해 ‘통행 구간 미준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로의 도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담당 기관에 파손된 도로 교체, 지면의 평탄화, 노

상 장애물의 철거 등 도로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가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IV. 결론

이번 조사로 ○○로의 사고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은 학생들의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해결 방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8.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 문제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한다.
- ② 조사 내용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분류하여 요약한다.
- ③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한다.
- ④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⑤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를 제시한다.

29. ㉠~㉣이 ‘III. 조사 결과’에 구체화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전거 대 보행자 간 교통사고 건수 변동 추이
- ② ㉡: 도로 정비 및 관리 미흡
- ③ ㉢: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④ ㉣: 통행 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요구
- ⑤ ㉣: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30. <보기>는 ‘IV. 결론’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번 조사로 ○○로의 사고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 등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조사의 한계를 추가하고, 후속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게 어때?
- ②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사의 의의를 제시하는 게 어때?
- ③ 문제 해결의 주체를 추가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게 어때?
- ④ 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결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게 어때?
- ⑤ 조사의 취지를 삭제하고, 담당 기관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게 어때?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으로 돌아오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서 무엇이라 하더이까?”
 학공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나를 죽이자 하니 어인 말인고? 그대가 이르는 대로 작은 잔을 들어 술 삼 배만 먹었노라.”
 하니 별선이 깊이 숨을 쉬고 눈물이 비 오듯하며 말을 못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오늘 밤 축시에 낭군을 죽이자 하고 잔치를 배설하였나이다.”
 하니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놀라 기절하였다가 만나질 만에 인사를 차리며 말하기를,
 “이제는 내 목숨이 함정에 든 범이요, 독에 든 쥐라.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도다.”
 하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치며 통곡하니 별선은 낭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천하가 넓다 하여도 이제 보견대 좁기도 하도다. 조그마한 낭군의 일신을 감출 곳이 없으니 답답하고 가련하도다. 내 벌써 이 말을 하고자 하나 애처로운 거동과 기탄하는 양을 차마 보지 못할뿐더러 또한 자결할까 하여 지금까지 말을 못 하였거니와 이제 낭군이 죽으면 나도 한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도다.”
 하며,
 “불쌍토다! 우리 낭군. 가련하다! 나의 일이. 답답하고 가련한 이 설움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인제 가면 어느 때나 다시 올까? 초로 같은 인생이 뜬구름같이 스러지니 어느 때에 다시 볼까? 명년 춘삼월이 돌아오면 꽃은 다시 보려니와 불쌍한 우리 님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황천에 다시 만나 볼까? 서산에 지는 해는 명일이면 보련만은 답답하고 원통하도다. 오늘 밤이 죽을 때일세. 설운지고. 아깝도다! 서산에 해가 지니 동녘에 뜬 달은 동창에 비치었다. 어리운 듯 밤이 되매 이제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한탄으로 지내노라니 학공이 울며 하는 말이,
 “명명하신 하느님은 굶어살피소서. 가련한 학공이 오늘 밤에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 이같이 죽은들 뒤라서 불쌍타 하오리까?”
 하며 애통하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낭군은 너무 서러워 마옵소서. 어머니도 야속하고 야속하지. 그 말을 못 참던가? 이 지경이 되었던 말인가?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만났는고? 임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임 못 살지. 임 죽으면 내가 어찌 살까?”
 하며 서로 붙들고 슬피 우니 눈물이 비 오듯 하는지라. 별선이 자탄하는 말이,
 “무슨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연분을 맺어 나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던 말인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이 모두 내 탓이라. 오직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오니** 낭군은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하거늘 학공이 하는 말이,
 “죽음도 뭇뭇이라. 바꾼단 말이 무슨 말인고?”
 별선이 하는 말이,
 “내 말을 자세히 들으옵소서. 만일 낭군이 죽으면 부모의 원수를 뒤라서 갚오리까? 이 몸을 대신하여도 어두운 밤에 어찌 알리이까? 알 리가 없을 것이니 낭군은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낭군 누웠던 자리에는 첩이 눕고 첩이 누웠던 자리에는 낭군이 누워 있으면 침침한 야삼경에 뒤라서 분별하오리오. 낭군은 상투를 풀어 땡기를 드리우고 첩은 머리를 풀어

상투를 하오면 저놈들이 어두운 밤에 상투를 잡아낼 것이니, 낭군은 붓짐을 끼고 머리를 산발하고 먼발치로 따라오며 여자 목소리로 울면서 물가에 섰으면 그놈들이 첩의 신체를 물에 넣고 갈 것이니 물가에 앉아 슬피 울면 물 지키는 관리가 배를 타고 올 것이니 외치시기를 ‘나는 육지에서 이 섬 중으로 시집온 지 삼 년 만에 부친의 부음을 만나 가다가 배가 없어 못 가오니 물을 건너게 해 주시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다시 뵈겠사옵나이다.’ 하며 애걸하면 물을 건너게 해 줄 것이니 육지에 나가거든 공부를 힘써 하여 아무쪼록 입신 양명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사옵고 첩의 원수도 갚아 주시옵소서.”

[중략 줄거리] 별선은 학공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는다. 학공은 황 승상의 양아들이 되고, 황 승상의 권유로 새로 장가를 가게 된다.

어느덧 길일을 당하며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한지라. 위의를 갖추고 예석에 이르니 신랑의 늙은 풍채와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천정배필이라. 보는 자 누구 아니 칭찬하리오. 종일토록 잔치를 마친 후 날이 저물매 신방에 들어가 좌정하니 별선의 생각이 자연 더욱 간절하여 전전불매하더니 밤이 이미 깊었는지라. 마지못하여 침석에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와 낭군을 붙들고 낙루하며 말하기를,

“당초의 언약이 지중하거늘 이다지 허사가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방이 누구 방이라고 누웠으며 나 같은 박명 원혼은 주야로 낭군 생각이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낭군은 좋은 시절을 다시 만나 숙녀를 취하여 이 같은 혼백을 생각지 아니하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그러하오나 속담에 이르기를 탐화봉접*이라 하였으니 ㉠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 피는 꽃을 돌아보지 아니하오리까? 바라건대 낭군은 불쌍한 첩의 혼백도 생각하옵소서. 유명이 다르기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빠 돌아가오니 낭군은 내내 무양하옵소서.”

하고 돌아가거늘 학공이 달려들어 붙들려 할 즈음에 홀연 간 데 없는지라.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심신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야로 별선의 생각이 간절하더라. 일일은 또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와서 학공의 손을 잡고 몸에 피를 흘리고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망극한 정회는 풀었으나 또 온 것은 다름 아니오라 지금 국태민안하여 **황성에서 과거를 보인다** 하오니 아무쪼록 과거를 보아 참방하시거든 불공대천지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학공이 괴이히 여겨 과거 소문을 탐지하니 과연 과거를 보인다 하거늘 **과거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을 당하매** 시지를 옆에 끼고 장중에 들어가니 글제를 걸었거늘, 평소에 외우던 글이거늘 용연에 먹을 갈아 황모무심필 반 중동을 흠뻑 풀어 일필휘지하니 **문장은 이태백이요, 필법은 왕희지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 탐화봉접: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공은 별선의 만류에도 모친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잔치에 참석하였다.
- ② 별선은 잔치에 다녀온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 ③ 별선은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다.
- ④ 학공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 물 지키는 관리가 도와줄 것이라고 별선은 생각하고 있다.
- ⑤ 학공은 신방에 신부가 들어왔을 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32. '별선'이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앞으로 학공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 ② 학공이 평생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 ③ 학공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 ④ 꿈에서나마 학공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 ⑤ 학공이 새로 신부를 맞이한 것을 이해한다.

3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다음은 「김학공전」에 관한 자료이다. ㉠~㉢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시오.

○ ㉠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

비범한
탄생

→

죽음의
위기

→

조력자의
도움

→

위기
극복

→

개인의
목표와
사회적
위업 달성

○ ㉡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

○ ㉢ **조력의 방식**: 해결 방안 제시, 초월적 능력 발휘, 죽음 이후 개입

- ①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학공이 슬퍼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가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 학공의 개인적 목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학공이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라고 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 있겠군.
- ③ 별선이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라고 학공에게 말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별선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별선이 학공의 꿈에 나타나 '황성에서 과거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별선이 사후에도 학공의 삶에 개입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겠군.
- ⑤ 학공이 과거에서 쓴 답안이 '문장은 이태백'이고 '필법은 왕희지'인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학공이 사회적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겠군.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心)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아아 울던 ㉡ 청춘과부 크게 활짝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春) 자로 부쳐 두고
 꽃다운 이내 얼굴 꽃 화(花)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 볼까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굽이굽이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술술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봄 춘 자 만난 꽃 화 자요 꽃 화 자 만난 봄 춘 자라
 열시고나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 여사로: 보통 일처럼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나)

명경(明鏡)*에 때 끼거든 값 주고 닦을 줄
 ㉡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치어 알건마는
 값 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는도다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돌아들어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한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어찌 종일(終日) 행인이 오도 가도 안 하는게요

<제2수>

구인산 긴 술 베어 제세주(濟世舟)를 만들어 내어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 하였더니
 사공도 못나서 저무는 강가에 버렸도다

<제3수>

- 박인로, 「자경」 -

* 명경: 깨끗한 거울.

(다)

부구공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지난번 밖에서 노닐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뱀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용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우선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지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내가 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요.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여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좋아하는 이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군자라 보장할 수 있겠소. 나를 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소인이라 보장할 수 있겠소. 사람들에게는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是非)를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요.”

이에 ㉠ 선문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요?”

부구공이 대답했다.

“있소.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따름이요. 그리고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을 따름이요. 어째서 그러한가. 군자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오.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가 나를 허여(許與)*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허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중략)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니, 남들이 어떻게 간여할 수 있겠소.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不善)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근심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을 것이요.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

이에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여 말했다.

“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 보지 못했을 적에는 나만 한 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 지금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

- 박세당, 「효애오잠」 -

* 허여: 마음으로 허락하여 칭찬함.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소망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명령형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경관의 순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나)는 화자 자신과 세상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자경’은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다. 화자는 추상적 대상을 가상의 사물에 빗대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데, 가령 ‘뜻을 정성되게 한다.’라는 군자의 마음가짐과 유교의 8가지 윤리를 각각 가상의 관문인 ‘성의관’과 ‘팔덕문’에 비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화자의 포부를 가상의 배인 ‘제세주’에 빗대면서 화자 자신을 ‘사공’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값 주고 닭을 줄’ 아는 ‘명경’에 마음을 빗대어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명덕을 닭을 줄을 모르는도다’라고 말하며 자기 수양에 소홀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팔덕문’으로 향한 길을 ‘크나큰 한 길’이라고 표현하여 유교의 8가지 윤리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당대의 현실을 ‘행인이 오도 가도 안 하는’ 상황에 빗대어 올바른 가치가 외면받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
- ⑤ 자신을 ‘제세주’를 ‘강가에 버’린 ‘사공’에 빗대어 세상을 구제하려는 포부를 이루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군.

36.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② ㉠은 상대방과 대화한 결과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주고, ㉡는 대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를 반박한다.
- ③ ㉠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에 의문을 표한다.
- ④ ㉠과 ㉡는 모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
- ⑤ ㉠과 ㉡는 모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이후 기쁨의 정서를 표출한다.

37.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여기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젊고 어여쁜 시절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이 화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대상이 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서 새로 배운 것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에서 덴동어미는 대상에서 비롯하는 근심과 기쁨은 자신이 겪는 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근심과 기쁨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얽매어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상,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가려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 ① (가)에서 ‘귀도 또한 별일이지’라고 한 것에서, 대상에서 비롯하는 감정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라고 한 것에서, 근심과 기쁨 같은 감정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다)에서 ‘나를 군자라고 하는’ 말을 군자가 하면 기뻐하고 소인이 하면 근심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타인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다)에서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 된다고 한 것에서,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군.
- ⑤ (다)에서 ‘근본은 나에게 있’으므로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라고 한 것에서,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성호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김학모는 해방 후 크게 출세한다.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하고,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한다.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한다.

“㉠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약혼식 올리러 가네 하고 외장치고* 갈 판이냐? 네 어머니만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만 가자.”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보았다.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김 국장은 이번에 새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 그래 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성호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 내일 열두 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에 마시고 일어섰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 패듯 했던 할아버지 고향 소리가 귓가에 살아왔다. 그런데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 내며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성호는 허탈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삼일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독기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

성호는 병원으로 가며 어쩌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 성호는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도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열결에 대답을 해 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성호는?”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그럼 잘됐다. ㉣ 오늘이 동곡 영감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성호 아버지는 깜짝 놀라 성호를 돌아봤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붙이나 마찬가지로. 작년도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느냐?”

성호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룻길이 빠듯했다.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래 써서 옛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 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성호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다.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A]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돌아봤다.

“㉤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급한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친구는 답에 만나도 될 것 아니냐?”
 할아버지 말에는 가벼운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가 돼 놔서…….”
 성호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아마, 성호도…….”
 “뭣이?”
 할아버지가 발끈했다.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게야?”
 할아버지는 이미 낚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 경적 소리가 울려왔다.

“성호 너나 가자.”
 할아버지는 성호를 채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성호는 할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야, 나 좀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호를 불렀다. 내외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성호를 한쪽으로 끌어 뒤라 컷속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커엄!”
 어머니가 찢끔했다. 성호는 그 ㉢ 커엄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 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오며 랑 문을 닫았다.

내외는 명청하게 서 있고 차는 부르릉 떠났다. 차가 시내를 달렸다. 성호 눈앞에 몇 사람 영상이 었혔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 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여태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호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인들이 형님 동생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잔칫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 그 요란스런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자기 꼴을 상상해 봤다.

그 영상 위에 영똥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동곡 할아버지였다. 이육사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곡 할아버지였다. 성호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에 조용히 웃음을 여뻤다.
 - 송기숙, 「도깨비 잔치」 -

* 외장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듯 혼자서 고래고래 떠들고.

3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언급된 상황은 성호가 ㉢의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이다.
 - ② ㉢에 언급된 상황은 아버지와 성호가 ㉣을 듣고 긴장하는 이유가 된다.
 - ③ ㉢에 담긴 아버지의 요구와 ㉣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 사이에서 성호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
 - ④ ㉣에 대한 대답은, 할아버지가 말한 ㉢로 이어진다.
 - ⑤ ㉣은 아버지가, ㉣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가 일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말이다.

41. ㉠과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화를 중단시키고, ㉢은 이어지려는 말을 막는다.
 - ② ㉠은 성호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 그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 ③ ㉠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실망감을 성호에게 불러일으킨다.
 - ④ ㉠은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평가를 달라지게 하고, ㉢은 할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성호의 거부감을 유발한다.
 - ⑤ ㉠은 할아버지가 전화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 주고, ㉢은 그 일에 대한 할아버지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도깨비 잔치」의 성호 할아버지와 동곡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강직한 역사의식을 지니게 된 인물로, 고고한 기품을 지닌다. 김학모는 아버지의 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운주를 성호와 결혼시키려 하고, 성호 아버지는 김학모의 환심을 얻어 교육계에서 출세하기 위해 둘의 결혼을 서두른다. 성호는 할아버지의 역사의식에 공감하여 결혼을 반대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운주와 결혼하려 한다. 제목의 ‘도깨비’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역사의식을 결여한 인물들을, ‘잔치’는 이 인물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것에서, 아버지가 무리해서 식을 올리려는 이유가 김학모의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성호가 짐작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김학모를 ‘배짱과 집념’의 인물로 표현한 것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성호의 긍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에서 멀어짐에 따라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것에서, 할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된 성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약혼식의 모습을 ‘도깨비들 잔치판’으로 표현한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한 성호의 비판적 의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동곡 할아버지에게서 ‘갈매나무’를 떠올리고 ‘조용히 웃음을 여’민 것에서, 고고한 기품을 지녔던 동곡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성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의 화자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그로부터 주제 의식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화자는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 또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대의 사회나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화자는 이러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감각적인 시어나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한 문장을 서로 다른 행에 걸쳐서 하기도 한다.

(나)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곤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한다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없는 우웃빛
유리공 속의 불투명이 깊어지면 갈수록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꼳꼳하여 흠어지지 않았다

몰라, 부딪쳐 깨지면 깨어질까
결코 굽힘을 모른다면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처럼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 그의 정신은 빛난다

여린 몸집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
온갖 협잡의 시대를 감당해 내며
비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다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일순
그의 몸을 꿰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다
지금 세상은 어둡고 한 점 별도 없는데
진공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그대를 생각한다

- 이동순, 「필라멘트」 -

(다)

이곳에선 아무도 견지를 않습니다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입니다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산책은 아니
㉢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어 준다는 비밀을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도시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휘방하는 것이지요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낌보는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면
도시에게 당하고 말지요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 이문재, 「마지막 느낌보 - 산책시 3」 -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한 문장의 중간에서 행을 나누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들 간의 갈등 해소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직면한 현실을 감당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 ④ ㉡는 화자와 세계의 소통을 방해하고, ㉢는 화자와 세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 ⑤ ㉡는 화자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게 된 원인이고, ㉢는 화자가 현실에 순응한 결과이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꼳꼳하여 흠어지지 않았다’는 ‘그의 자세’에서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온갖 협잡의 시대’라는 ‘지금 세상’은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문제의식을 나타내겠군.
- ③ (다)의 ‘두 눈과 귀를 열어 준다’는 ‘게으름’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나타내겠군.
- ④ (다)의 ‘유토피아의 초대장들’이 ‘산책을 휘방하는 것’에서 도시 문명의 기만적 속성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다)의 ‘도시’를 ‘거대한 묘지’로 표현한 것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